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전달체계로 재편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 30~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되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다.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존 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보장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회복지인력 사전 충원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 제주를 키우는 힘’

2013 제주나눔대축제 개최



▲2013 제주나눔대축제가 오는 5일~6일까지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행사 모습

오는 5~6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민 나눔의 장 마련

나눔문화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2013제주 나눔 대축제’가 오는 5~6일까지 제주시 도남동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옆에 위치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연다.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의 지역행사로 제주를 비롯한 서울·부산·경기·인천·대전·울산·광주 등 8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축제는 제주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서 제주지역의 나눔과 기부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눔, 제주를 키우는 힘’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축제는 제주인의 나눔정신을 테마로 하는 수놓음·조각·편당·김만덕 마당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나눔과 체험부스들이 운영되며, 매년 개최되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사랑 바자회’와 통합 개최되어 제주지역의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규모 축제의 장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5일에는 8인조 브라스밴드 사우스카니발의 축하공연에 이어 나눔유공자 시상식, 나눔실천 서약식 등으로 꾸며지는 개막

식과 청소년 재능나눔 한마당, 제주유나이티드FC 팬사인회, 기부식품꾸러미 만들기 등의 무대행사가 진행되며, 둘째날인 6일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이 참여하는 제주MBC노래자랑 공개녹화방송이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나눔카페와 기념 포토존이 운영되며, 1년 후 받아보는 희망나눔엽서 쓰기, 현장 앙케이트, 솜사탕과 후드과자를 제공하는 부대행사 등을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받아 꾸미는 ‘나눔 실천의 벽’의 운영을 통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한층 키워나갈 예정이다. 또, 제주의 바람과 비를 모티브로 제작한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인 ‘나눔의 길’을 통해 나눔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축제는 축제홍보물 제작, 부스운영, 무대공연, 축제진행 등이 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제주지역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 속에 진행됨으로서 나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회장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제주인의 나눔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눔대축제가 개최되어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이번 축제를 계기로 나눔과 기부가 특별한 일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일임을 느끼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이상무'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6)
- 사회복지소식 4·5면
지역아동센터 연합 문화축제 제16회 전국 수화경연대회 열려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 광고 8면
2013 제주 나눔 대축제

10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1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알코올상담센터	가족교육	'알코올중독과 가족' /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가능	16일 13시~14시 / 제주알코올상담센터 / 무료	759-0911
	실무자교육	'조현병이란' / 사회복지시설실무자 참여가능	16일 16시~17시30분 / 제주알코올상담센터 / 무료	759-0911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장애인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지원대상: 장애인복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 10개소	직접,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	751-91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자기권리옹호교육, 맞춤형 여가·문화활동 등 성인기 20~30대 장애인 15명	1일~25일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 무료	725-1370
한국농아인협회	제16회 전도수화경연대회	수화로 표현하는 노래, 연극, 연설 등 경연	13일(일)14시 / 제주학생문화원	743-3920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수화프리즘 4분기 수화교실 교육일정	수화 초급·중급·고급반 개설 / 수강료3만원~5만원(책값별도)	10월1(화)~12월12일(목) 3개월(20회)19시~20시 제주시지부 교육장(탐라장애인복지관 3층)	757-21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기획과정	프로그램 기획, 진행, 평가	17일 9:30~12:30 /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품나는 2014년 연간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실무,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18일 10시~14시 / 협의회 2층 삼다수홀	
	사회복지시설정보화시스템사용자교육	경리기초과정, 인사·급여과정, 고객관리과정, 시군구보고과정	29일~11월1일 10시~16시 / 협의회 2층 삼다수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이상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2회에 걸쳐 사업공모를 한 결과 33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해 추진 중이다.

현재 종결된 사업으로는 지난 7월 9일 서귀포시여성발전연대가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여성의 사회공

헌 및 긍정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제주대학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는 방과 후 학교에 따른 양질의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학습코칭지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이밖에 지난달에는 삼무힐링영양교육사업단에서 가족간의 소통의 기회와 건강한 가족만들기를 위한 ‘힐링 명상 가족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사회복지법인 청수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심리치료와 인식개선 작품공모 및 동아리 발표회를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목표 달성도, 회계 투명성, 사업성과 등에 대한 자체 및 외부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높은 단체에는 다음연도 신청 시 가점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 성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가 지난날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정 감귤 찾아 떠나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다문화가정 13가족이 참여한 제주문화체험 ‘제주에 빠지다’ 5회기를 진행했다.

5회기 테마는 ‘제주의 특산물’로 감귤박물관을 방문해 감귤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노동현장을 엿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

졌다. 또 코코몽 에코파크(대표 임미숙)를 방문해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했다.

필리핀에서 온 김란희 씨는 “제주도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농기구 및 전통 민속유물을 관람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농사를 지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함께 나누는 추석명절’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4천여 명과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다문화가정 등 3천 여 가구에 2억 30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직접 위문과 격려에 나섰다.

또 공직자로 구성된 존샘봉사회 등 자원봉사단 19개 동아리 571명은 자율적으로 자매결연 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세탁봉사, 주거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제8회 전도 경로당 보치아 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지난날 26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제8회 전도 경로당 보치아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64개 경로당에서 출전하는 선수와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은 장애인올림픽의 한 종목인 보치아를 경로당 시설과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적용해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경로당 보치아 대회는 제주지역 경로당의 화합 및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여가문화 정착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청소년 위한 생활안정 특별지원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여건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생활안정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만9세~18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법 상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이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20여 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8개 분야 중 청소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710-2842)나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760-2463)로 문의하면 된다.

자미성요양원 비즈공예 프로그램 실시

내 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 요양원(원장 현갑열)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방문 프로그램 일환인 진주목걸이 만들기 비즈공예와 웃음치료를 진행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제주이주민센터는 추석을 맞아 지난날 20일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2013 이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각 나라 이주민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서로 우의를 다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전통놀이와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국에서의 외로움도 달래고 한가위에 대한 이해와 정겨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제주보건소와 연계해 이주민을 위한 이동 무료 건강검진 및 무료 이·미용서비스, 이주민 관련 생활지원 상담서비스 등도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지도자 안전 윤리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 및 기관, 단체지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 안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날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서는 청소년 프

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련 안전사고 예방방안과 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청소년지도자 성윤리 고취 등의 특강을 진행했다.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9월 식품기탁자

▲금강축산유통=육류 210kg ▲김치원=김치 40kg ▲뉴월드마트신제주점=비빔면 360개 ▲동원F&B제주=냉장·냉동 식품 2189개 ▲빵피아모=빵 34봉 ▲산방미곡=쌀 600kg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330모 ▲상상부식=김치 60kg ▲이든이네=멸치 7.5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채소 41.5kg ▲제주보리촌=보리빵 47봉 ▲제주의소리=삼다수(2L×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 150팩 ▲제주해양경찰서=쌀 200kg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쌀 49kg ▲파리마켓동광초점=빵 120봉 ▲김은숙씨=육류 12kg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070,000	4,07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90,000	390,000
복지사업후원	1,175,000	5,523,000
푸드마켓후원	2,760,000	7,103,5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6)

가을 주말은 제주국립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한라산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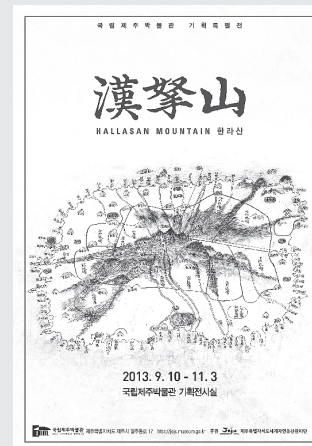


▲몽생이 기자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총괄을 맡고 있는 박찬순 주무관을 만나 '한라산 특별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
제주라고 하면 단번에 생각나
는 단어가 있다. 바로 한라산.

이번 몽생이 기자단은 국립
제주박물관 기획특별전 '한
라산'을 소개한다. 은하수 한

(漢)과 붙잡을 라(擎)를 합친
단어인 한라산(漢擎山)의 역
사와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한라산의 숨은 매력을 뿔어내
고 있다. 이 기획특별전은 지
난달 10일부터 11월3일까지
전시되는데, 1부<한라산>, 2
부<한라산과 사람들>, 3부<한
라산 신앙과 전설>, 4부<한라
산 풍경과 시>, 5부<서양인이
바라본 한라산>으로 구성되
어 있다. 1부는 한라산의 화
산활동 기록과 한라산의 어

원 등을 소개하고, 2부는 한
라산의 자연환경과 이를 활용
한 제주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3부는 한라산
과 관련된 믿음과 신앙에 대
해 소개되어 있고 4부는 한
라산을 그린 풍경그림과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부는
서양 사람이 본 한라산의 모
습을 소개한다. 또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니
이번 전시는 한라산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늘 우리곁에 있어 그 아름
다움과 웅장함을 몰랐었던
한라산, 가을나들이로 국립
제주박물관에서 제주의 깊은
멋을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
떨까?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법률홈닥터 ②

10년 전 산 불법건강보조식품 채무독촉 해결사례

소멸시효제도와 내용증명우편을 알아보자!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
씨는 10여년 전에 도로변에서
어떤 건강식품 판매업자로부터
황토자라 제품을 약 2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를 복용하였으
나 건강에 좋다고 느끼지는커
녕 설사와 복통이 발생해 전화
로 항의하여 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건강식품을
폐기하였다. 그 후 10여년이 지
나 건강식품 구입 사실조차 잊
게 되었을 무렵 위 채권을 양도
받았다는 어느 채권추심회사
법무관리팀으로부터 구입 가격
의 5배가 넘는 금액인 128만원
을 청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
을 경우 사기죄로 인한 형사 고

발 및 강제집행 및 재산명시 신
청, 신용 및 전산망 등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형사고소에
정통고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
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던 현씨는 딸인 이씨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
홈닥터와 무료 법률상담을 하
게 되었다.

법률홈닥터가 현씨의 딸인
이씨를 만나 전후 사정을 듣고
위 통고장 등을 검토한 결과,
위 채무는 판매업체와의 합의
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품대금
에 대한 채무로서 단기소멸시
효(3년)의 적용을 받아 이미 시
효소멸하였으므로 현씨는 이
를 변제할 책임이 없었다. 그리
고 현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
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하
지 않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
다 하더라도 공소시효(7년) 만
료로 형사 기소의 가능성이 없
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따
라서 현씨와 이씨에게 위 사정
을 설명하고, 소멸시효 중단 또
는 시효이익 포기 사유인 '승

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
라고 알려 주었다. 나아가 추
심 독촉이 계속된다면 위 내용
을 채권자 또는 추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와 같이 최근 채무가 없거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무작정 채무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응
을 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무
리한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
도이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행위
로 인한 채권은 5년이나, 상품
의 판매대금(3년), 음식점의 음
식료(1년) 등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의 이익
을 받는 자가 시효 완성을 주



장·입증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
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를 말하는데 발신자가 우편물
에 쓴 내용을 증거 자료로 삼
으려고 할 때 이용한다. 내용
을 작성하여 동일한 문서 3부
를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로 보내게 되는데 보통우편의
경우보다 내용증명 수수료(장
당 500~1000원)와 등기료가
추가된다. 발송한 내용증명우
편을 분실한 경우에는 예전 내
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
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인터넷으
로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INFO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
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
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
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
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
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
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
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 'Vision Festival'



지역아동센터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은 오는 9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제2회 지역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센터 연합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내 73개 지역아동센터와 약 22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합문화축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에게 재능발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서로의 재능을 봄으로써 도전의식을 갖도록 하여 더욱 높은 Vision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하공연과 기념식, 홍보 및 체험부스, 먹거리 장터, 연합 전시 등으로 꾸며질 이번

행사는 난타공연과 군악대 연주를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하며 도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로 구성된 우크렐레 연주, 방송댄스, 난타 앙상블, 오카리나 연주, 관현악 협주 등 8팀이 경연을 벌인다.

체험부스에서는 다문화 음식체험, 먹거리 마당, 미술공예체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냅킨아트, 스카프 염색 등을 운영하며, 행사장에서는 각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부채, 하회탈, 한지·나무·압화 공예 작품 등을 전시한다.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의 행복 만들기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임수경)는 지난달 12일 어르신, 봉사자 30여 명과 함께 우도를 방문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KRA(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마다 대중탕 이용, 장보기 등 어르신들에게 소규모 나들이, 소원들어드리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소/식/마/당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행복한 동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지난달 14일 위탁가정 및 자원봉사자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행복한 동행, 우리아이 우리가 키웁니다'를 진행했다.

위탁아동과 양육자들은 함께 검은 오름을 오른 후 아침농원 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한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철남 소장은 "보다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터전만들기' 사업 현판식



봉아름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진희)는 지난달 10일 한전KPC(주) 제주사업소(소장 김종남) 한마음 봉사단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희망터전만들기' 현판식을 진행했다.

임진희 센터장은 "지난 8월 제주사업소와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바닥과 전기판넬, 단열재 설치를 후원받은 덕분에 올 겨울 따뜻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마음 치유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매주 피학대어르신 대상으로 아로마 오일의 향기요법으로 심신의 자연치유하기, 장구로 오방진 장단을 익히고 민요를 부르기, 액자토피어리, 테라리움 만들기, 한지로 생활용품 만들기,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지도하여 어르신이 스스로 동화책을 읽고 편지쓰기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들이 프로그램으로 국립제주박물관 관람을 실시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도자원봉사센터 신라면세점과 물품 나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제주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1일 연동 동사무소에서 연동 지역 차상위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물품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상기온으로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올해 겨울을 대비하여 연동지역에 있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 5곳에 기금 50000과 차상위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부식세트를 지원했다.

제주시희망원, 오투기캠프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이사장 전내영) 산하 제주시희망원(원장 박정해)은 지난달 11~12일 1박 2일로 시설이용자, 직원, 삼다사이클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하는 2013 오투기캠프 '함께하는 가족'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정기탁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 캠프는 통해 시설이용자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당당하게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가톨릭주간보호센터, 소방교육 실시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지난달 10일 주간보호센터 이용인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3/4분기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라동에 위치한 소방방재본부 소방교육대를 직접 방문해 ▲불이 났을 때 연기 속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농연 체험 ▲소화기 사용법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체험을 했다.

아가의집, 합동 차례 진행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14일 아가의집 이용자와 교사, 제주개발공사, 가족봉사단, 제주혈액원 등 80여 명과 함께 추석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아가의집에서는 동태전과 동그랑땡, 삼색전, 쇠고기 산적, 잡채, 삼색나물 등 추석 음식 만들기도 진행했으며, 차례 지내기, 윷놀이를 비롯한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복한쉼터 개원 2주년행사 열어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는 지난달 13일 개원 2주년을 맞이해 '행복한 날, 행복한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년 동안의 추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념식을 비롯해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떡을 나누는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오후에는 제주대학교 봉사 동아리인 '해피바이러스'와 함께 수목원테마파크로 나들이를 체험을 진행했다.

정석왕 원장은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행복제작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 통! 소통을 디자인하는’ 제16회 전도수화경연대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는 오는 13일 제16회 전도수화경연대회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모습.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는 오는 13일 제16회 전도수화경

연대회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 통! 소통을 디자인하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총 15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 상금 280만 원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는 노래를 비롯해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를 수화로 표현한다.

도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수화 홍보와 보급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제고와 수화통역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수화가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로서의 기능과 상호 유대 관계 형성, 농아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장애학생에게 보조기기 전달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도내 장애학생 3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 장애학생 학습보조기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장애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요한 높낮이 조절용 전동책상, 보이스톱, 맞춤형자세유지 의자 등을 지원했다.



정혜재활원 이흥기 원장 대통령 표창 수상

정혜재활원 이흥기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정혜원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정혜재활원 및 장애인 근로사업장, 체험휴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복귀 실현과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으로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기 장애인 부모를 위한 양육스트레스 관리, 성인기 독립생활 준비, 자기결정 기술 향상,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지원 정보 제공 등 ‘성인기 장애인부모 모델형 부모

교육’ ▲성인기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기 장애인 자기관리옹호 교육, 맞춤형 여가 문화활동, 리더십 훈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전화(725-1370, 1372 / 726-1371)나 직접 내방해 접수해야 한다.



산방영농조합법인 푸드마켓에 쌀 기탁

제주시 내도동 산방영농조합법인(대표 안순영)은 지난달 17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1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산방영농조합법인은 매년 추석마다 도내 저소득층에게 쌀을 기부해오고 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응급안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 서비스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가스 등의 센서를 부착해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소방서나 응급안전 지역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응급구조 및 안전확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차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장복, 장애아동 생태체험 캠프 실시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12~13일 이틀간 생태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생태치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서귀포 보목일대에서 관내 장애아동 20여명과 함께 자연생태 이해 등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장애아동들이 야외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봄으로써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생태체험캠프는 여가생활과 체험학습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자립적인 태도를 습득하기 위해 조별로 마트장보기 및 요리프로그램,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영상편지 및 아동 장기자랑, 제지기오름 산책, 승마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아동들은 각 조별로 장을 보고 온 재료를 손질하고 어묵탕, 햄 꼬치구이, 햄버거, 카레라이스 등 각자 분담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요리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또래 친구들과의 협동심 및 상호작용을 배우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지원팀은 “그동안 장애 아동들이 캠프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게 되서 너무 기쁘다”며 “학업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직접 체험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행복기자인
1기 현선옥 기자

※ 제주행복기자인은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자인입니다.



성지요양원, '해변으로 가요'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함께 해수욕장 나들이를 다녀왔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대각사, 탐라장복에 쌀 전달

대한불교 법화종 대각사(관종스님 이석현)는 추석을 맞이해 지난달 9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에 7kg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받은 쌀은 국민건강보험 제주지사(고승범 과장), 한울간병봉사회(회장 변명호)와 연계해 방문 전달했다.

아동들과 함께 즐거운 제주예술문화 체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학대 피해아동 12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초록우산감성아카데미, 꿈을 그리는 몽당연필’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주제는 ‘제주 예술문화 및 외식체험’으로 아동들은 이중섭 거리를 찾아 이중섭 미술관을 비롯해 이중섭 생가를 방문



한 후 이중섭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본 따 동판화를 만들어 보며, 제주 오션팰리스 호텔(대표 윤민혁)의 후원으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외식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칼럼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고보선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등록장애인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수는 251만 9241명이며 이중 정신장애인은 9만 4739명이다.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수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정신장애인의 증가와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인권적인 입원과 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타의 의한 강제입원 개선돼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의료기관 병상수는 2011년 기준으로 8만을 넘었으며 이중 78.6%가 강제입원을 하고 있으며, 21.4%만이 자의에 의한 입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자의 입원을 64.2%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즉,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도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현행 정신보건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념에 입각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활과 예방이 정신보건의 방향이지만, 정신장애인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실태는 이러한 이념을 역행하고 있는 예이다. 정신장애인을 병원에 가두고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정상화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와 사회적 분리를 가진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특수한 증상과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사회적 복귀와 적응을 지원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 중 하나가 사회적응이다. 특히, 지역사회지지체계는 정신장애인이 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정신장애

당사자 인권 우선해야

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환경체계가 될 수도 있지만,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정신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가족이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역사회자원 및 지지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근거로 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보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신보건법으로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시론

회색빛 신세계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약하고, 이용당하기 쉽고, 상냥하고, 성가시고, 돌봐야 하고, 돈이 많이 들고, 외로운 사람들. 테드 C. 피시먼은 『회색 쇼크』에서 노인에 대해 그렇게 표현했다. ‘노인’이라는 말은 그 어감이 마치 한 세대를 이미 지나버린

사람,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를 힘들게 견뎌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서글프다.

젊고 생생한 것만 예쁘고, 늙고 오래된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노인혐오증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작용하며, 사회가 노인을 기피하기 때문에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것이 당연한 노화, 활기찬 노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논의에서도 노인은 배제되기 일췌이다.

영국에서는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운전 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하는 도로표지판에 구부정한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과거에는 이 표지판에 굵은 글씨로 ‘노인(Elderly People)’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연령차별’을 조장한다고 해서 지워졌다.

누구나 노인된다는 진리 잊지말아야

하지만 지금은 노인들이 옛날처럼 허리가 굽지도 않은데다가 표지판의 그림이 노인들에게 오명을 씌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그림을 지우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나간다면 표지판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게 될까.

한편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스쿨존’처럼 취급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역시 노인들을 어린이처럼 취급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테드 C. 피시먼, 『회색 쇼크』).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적어도 노인문제와 관련한 담론이 이어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회의 노인보다 훨씬 더 당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플로리다의 새러소타(Sarasota), 스페인의 시구엔자(Siguenza) 등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삶의 주변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지역사회의 메커니즘이 노년층의 속도와 취향에 맞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만 제기되고 있을 뿐,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몇몇 사안 외에는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게다가 노인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차별의 대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노인차별,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단,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사회적 배제’나 ‘사회적 불리’의 차원이 아니라, 기능의 쇠퇴로 인해 노인이 젊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실히 배려하자는 의미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진리 앞에서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회색빛 신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기고

공공데이터 개방, 도내 IT업체에 큰 기회 될 것



양정석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0일에 제정되었고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정부3.0에서 이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언뜻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이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법률이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

두 개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정부2.0이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중심의 양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었다면 정부3.0은 개인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국민개개인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국민개개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정부3.0은 정부가 직접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개방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면 공

공기관이든 정부든 또는 영리목적이던 비영리 목적이던 상관없이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내 IT업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바빠졌다. 데이터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고 활용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비공개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고, 저작권 등의 권리도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도내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조사하여 개방계획과 함께 데이터의 품질을 위한 추진도 계획할 예정이다.

■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장애인활동보조 “필요한 만큼 서비스 제공해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열려



▲지난달 11일 서울 이룸센터 지하 1층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 = 웰페어뉴스>

활동지원서비스를 도입한지 6년이 지났으나 과도한 본인부담금, 부족한 서비스 시간, 자격조건 제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지난달 11일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주최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흥구 부회장은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제한적인 활동보조 이용 시간 △서비스 수급 자격의 제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낮은 서비스 질과 활동보조인과의 갈등 △낮은 공공성 등을 꼽았다.

박 부회장은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12시간으로 제

한해놓고 나머지 12시간은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으니 김주영 활동가 사망 사건, 파주남매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났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따라 시간을 깎을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별도 예산 편성 ▲자부담 문제 해결 ▲활동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 위해 당사자 단체와 협의기구 구성 ▲수급자격위원회의 강화와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공공성 강화를 들었으며, 근본적 대안으로 활동보조인의 △젊은 계층 유입 확대 △고용 형태 다양화 △외국인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최강민 사무총장 “확실적 조사 방식 문제...새롭게 개편돼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활동보조 인정조사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사회 환경적 요인보다는 일상생활능력 중심으로만 평가하다보니 신체의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해 획일적인 평가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인정조사 등급을 폐지하고, 점수가 시간으로 환산되는 시스템 구축과 추가 급여의 탄력적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에 젊은 층이 없는 이유는 활동보조 급여만으로는 현실 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계기관마다 급여도 달라 100원 많은 기관으로 옮겨가는 분도 많다”며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환경과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가가 책정돼야 이용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 코디네이터 “자부담 기준,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어 부담가중”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 활동보조코디네이터는 “현재 차상위계층 이상 이용자들은 왜 자부담을 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적게는 4~5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넘는 자부담을 내고 있으며, 자부담 산정기준을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으로 해 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코디네이터는 “신청자격 또한 장애등급 2급 이내로 제한하고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장애등급과 나이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아주 기본

적인 것부터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 5세 이하이거나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이용하게 하는 등 나이로도 차별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자부담 원칙을 폐지해 가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강민 사무총장은 “장애인당사자 입장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한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도,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모 아니면 도’와 같은 획일적인 방식을 폐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 제주 나눔대축제

나눔, 제주를 키우는 힘

• 일시: 2013. 10. 5(토) 09:00부터
(※개막식: 11:00)

2013. 10. 6(일) 16:30까지

• 장소: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옆)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행사내용

제주의 나눔정신을 테마로 한 80개 나눔과 체험부스 운영

• 첫째 날 _축하공연, 나눔실천서약식, 청소년재능나눔 한마당, 제주유나이티드FC 팬싸인회

• 둘째 날 _제주MBC노래자랑 공개녹화

• 부대행사_기부식품꾸러미 만들기, 나눔카페, 1년 후 받아보는 희망엽서 보내기 등

※참가하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드리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체험부스 방문 확인을 받고 참가소감문을 남기시면 2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해 드립니다.



후원 · 협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마트, 기리유통, LG생활건강, 오리온, 제주유나이티드, 작은세상봉사단, 전국푸드뱅크